

6·25전쟁 연구의 국내적 신경향

李 完 範*

1. 서 문
2. 중앙에서 지역으로: 사회사적 접근, 학살과 수난, 인권, 과거 사로서의 전쟁 연구
3. 정치에서 생활로: 구술사적-인류학적 접근, Document에서 Oral History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4. 강자에서 약자로: 소수자에 대한 조망
5.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으로: 탈냉전시대 문학과 기억
6. 맺 음 말: 생활미시사에 의한 거시사적 접근 보완과 구술사 아카이브즈 구축

1. 서 문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도 이미 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므로 이에 대해 차분히 조망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분단과 전쟁이라는 화두로 상징되는 1945년 이후 한국현대사의 중심 과제는 당연히 통일 민족국가수립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학계의 전쟁 연구는 정치사·전쟁사적 분석이 주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 전쟁 속에 수난을 입었던 사람을 조망하는 조류가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신경향을 조망하고 점검하는 일종의 리뷰이다.

1950년 6월 2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정작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주로 책임 규명 등의 정치적 문제에 집중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은 건조한 기억 너머의 기록이 아니라 체험에 의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를 지배하는 숨쉬는 역사다. 전쟁이 끝난 지도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나름대로의 기억들을 침묵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으며 참담한 기억들을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로 아직 발설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1950년 전쟁 이후 분단과 양극화된 냉전체제의 장벽에 막혀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를 통해 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 대립과 전쟁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사적 기억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하나의 역사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쟁체험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계속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 중앙에서 지역으로 : 사회사적 접근, 학살과 수난, 인권, 과거사로서의 전쟁 연구

1950년 전쟁 중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역시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의 '수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난에 대한 연구는 논의조차 금기시되었던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천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과거사청산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정치사와 사회사적 접근으로 이 문제를 조망하기 시작했는데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편), 『광주전남현대사』 2(서울: 실천문화사, 1991)를 통해 전쟁 당시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취재기자의 인터뷰가 빛을 보았다. “유명한 캠브리지의 현대사가 보여주듯이 역사는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다시 씌여지는 것”¹⁾이라는 문제의식으로 기획된 이 책은 분단극복과 통일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민주화와 역사재조명 분위기 아래서 학문적 저작이 잇따랐다.

일찍이 「장흥에서의 정치투쟁」, 『역사와 현장』 1(남풍, 1990)을 발표했던 정근식 교수는 이를 더욱 진전시켜 「한국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p. 297-325을 내어놓았다. 그는 장흥 여수-순천 등의 사례를 공간된 문서 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정치적 갈등의 차원에서 추적했으며 보다 낮은 수준의 마을단위의 연구를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정근식 교수는 「한국전쟁경험과 공동체적 기억: 영암 구림권을 중심으로 (Korean War Experience and Communal Memory in Youngam Gurim Village)」,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5권 2호,

1)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편), 『광주전남현대사』 1(서울: 실천문화사, 1991), p. 12.

역사문화학회(2002년 11월), pp. 165-214에서 구술사 채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의 「지역사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 『호남문화연구』 28, 호남문화연구소(2001)의 후속 연구로 구술자 면접은 2000년 5월과 6월, 2001년 2월과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행하였는데, 중요 인물은 반복조사를 행하였다. 아울러 구림마을 출신 인사의 미간행 회고록도 참조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는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 마을주민들에게 매우 크고 다양했다는 것이다. 첫째, 인구구성상 주민들의 정상적인 세대적 재생산이 교란되었다. 한 주민은 “내놓을만한 청년들은 다 죽었지”라고 회상했다. 둘째, 한편으로는 마을공동체가 지속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모든 주민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만드는 매개물로 전락했다. 이것은 상당기간 주민 대부분이 국가권력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소극적 추종체제를 만들어냈다. 구림 주민들은 국가정책에 냉소적이지만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추종했다. 셋째, 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고 깊게 내면화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실체로서 힘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쟁이었지만, 전쟁의 체험은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방식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 우익진영에 섰던 사람은 갈등의 봉합이나 공동체적 화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익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부역혐의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좌익’도 아닌데 ‘좌익’으로 간주되어 불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으며,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흠을 씻어내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노력했고, 연좌제의 적용을 덜 받는 영역으로 자신이나 자녀들을 진출하도록 유도했다. 전쟁 후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상을 보증받는 핵심적 피난방식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상은 「한국전쟁과 계급구조 변동: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편), 『계급과 한국사회』(서울: 한울, 1994)²⁾를

2) 정진상 교수는 후속 논문인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전쟁과 자본주의』(서울: 한울, 2000)에서 한국전쟁이 반봉건적 지주

간행했는데 신분제와 계급구조의 해체를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다.

한편 사회사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역사성과 식민지 체험 및 전쟁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회고적 서술로는 소설가 송기숙의 산문집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서울: 화남, 2005)이 특기할 만하다.

1990년대 말 이후 노근리사건을 필두로 거창사건,³⁾ 함평사건⁴⁾ 등이 주목받으면서 '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었다.⁵⁾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의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AP 통신의 문서 공개와 방선주 선생의 문서 발굴로 전쟁체제와 인권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⁶⁾

소작관계와 전근대적 신분제 유제가 결정적으로 붕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 박재홍-정진상-허권수-김준형-지승중, 『근대사회변동과 양반』(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을 저술하기도 했다.

- 3) 박명림(Myung-Lim Park)은 일찍이 「지방에서의 한국전쟁(1): 충북, 1945-1953」, 『아세아연구』 제40권 2호, 아세아문제연구소, 1997년 12월, pp. 131-173을 저술했으며,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 사건의 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년 여름, pp. 69-91; 「전쟁, 정치, 그리고 진실: 거창사건의 충격, 영향, 의미 서설」, 『거창사건의 정치적-법적 처리과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제2회 거창사건 학술회의, 거창문화센터, 2002년 10월 18일, pp. 1-34을 썼다.
- 4)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서울: 사회문화원, 2001).
- 5) 허만호, 「한국전쟁의 인권 유산들: 민간인 집단학살과 북한역류 한국군포로」(Human Rights Legacies of the Korean War: Civilian Genocide and South Korean POWs Detained in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21세기평화연구소, 한국전쟁연구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한국전쟁과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모색, 2000; 김영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 정근식(외편),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2(서울: 삼인, 200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과주: 한울아카데미, 2005).
- 6) 최병수·정구도,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 지구의 민간인 살상 사건에 관한 연구(I): 노근리의 미군 대(對)양민 집단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제17집(청주: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년 2월), pp. 245-283;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년 여름; 최상훈·찰스 헨리·마사 맨도자(공저), 『노근리 다리: 한국 전쟁의 숨겨진 악몽』, 남원준(역)(서울: 일길, 2003); 정구도(편), 『노근리 사건의 진상과 교훈』 증보판(서울: 두남, 2003).

또한 박찬승 교수는 「한국전쟁과 진도 동쪽 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제38호, 한국역사연구회(2000), pp. 274-308를 저술하기도 했다. 그는 계급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세등리의 전쟁 경험 중 마을 내 친족,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량학살의 주요원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전쟁 중 민중들의 삶을 관심 깊게 지켜보던 김동춘 교수는 1999년 10월 9일 한국산업사회학회가 주최한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인 「한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의 사회학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0년 돌베개출판사를 통해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를 출간했다. 피난-점령-학살을 화두로 삼은 이 책의 제4부 학살(195-286쪽)편에서 저자는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하였다. 그는 이 책을 “한국전쟁 당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스러져간 남북한의 모든 이름 없는 영령들 앞에 바친다”고 적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전쟁이 일반 민중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자 했다. 군인, 경찰,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해 국가의 활동을 재구성했으며 미국 자료, 언론사 탐사자료, 유족회 발간 자료, 생존자와 유족들의 면담 등에 의한 현지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점령과 학살을 조망했다. 한편 김동춘 교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인의 체험 영역에서 살펴보면 볼수록 국가는 중요하지 않은 범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⁷⁾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사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⁸⁾ 전상인, 「한국전쟁의 사회사를 위하여」, 『사회비평』 제24호(나남, 2000년 여름), 104-116쪽이 그것이다.⁹⁾

7) 김동춘, 「한국전쟁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표인주(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198-200쪽.

8) 사회학계의 한국전쟁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집대성되었다.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이 그것이다.

3. 정치에서 생활로 : 구술사적-인류학적 접근, Document에서 Oral History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런데 위와 같은 사회사적 조망들이 정치적 담론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전쟁을 정치적 구호 속에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일반 민중들의 현실적 전쟁경험은 정치적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기존의 정치사적이며 비판적 시각들은 1980년대 '민중사'적 접근의 영향하에 상당부분 있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면서 민중사학이 아직도 유효한지 논쟁이 벌어졌다.¹⁰⁾ 또한 서구 포스트모던 역사학이 한국 사학계에 소개되면서 모더니즘 역사학에서 배제된 타자들(일반 민중, 여성, 소수 인종 등)에 대한 관심이 일었다.¹¹⁾ 윤택림은 민중개념을 재개념화하고 민중사가 아닌 사회사로서 종래의 민중사 연구를 극복하고자 했다.¹²⁾ 이용기는 민중의

9)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 236-249쪽에 재수록되었다. 이 글은 김성철, 『역사 앞에서』(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라는 일기와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서울: 웅진출판, 1992)라는 두 권의 소설, 할머니 시인 류춘도의 『잊히지 않는 사람들』(서울: 사람생각, 1999)이라는 시집에 대한 서평이다.

10) 김성보, 「'민중사학' 아직도 유효한가」,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1년 가을, p. 49.
11) 윤택림은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대표주자들인 데이비스, 단턴, 화이트, 라카프라 등과 위트케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일상사, 역사인류학, 미시사 연구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역사학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윤택림, 「탈식민 역사쓰기: 비공식 역사와 대중적 주체」, 『한국문화인류학』 2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 p. 105.
12) 윤택림, 「한국역사에서 사회사란 무엇인가」, 역사문제연구소(편),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 386-388.

내적 다양성과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민중을 중심에 놓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로서의 '사회사'를 제창했다. 이는 지배자나 엘리트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위로부터의 역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저항과 독자성만 강조하고 지배와 저항의 맞물림을 간과하는 기층민중의 '아래의 역사'와도 구별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사회사 연구자들은 민중과 그들의 삶의 공간인 사회, 즉 아래로 눈높이를 낮추고 그곳으로부터 위와 아래를 두루 조망하는 역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¹³⁾ 따라서 이들은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회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윤택림(Yoon Taek-Lim)은 민중사가 1980년대까지 공식역사(official history)에 대항하는 대항역사(counter history)였지만 공식역사에 못지않게 확실적 담론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방민의 사적 기록이나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¹⁴⁾ 이들 소외집단의 구술사에 기반한 새로운 역사쓰기를 제창했다. 그녀는 구술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여 생애사, 가족사를 재구성하려 했으며 민속자료, 자연경관 등을 사적 자료로 인정하고 수집했다.¹⁵⁾ 또한 국가의 부분사로서의 지방사(지방화된 국가전체사[national history localized])가 아니라 전체사로서의 지방사(local history as total history)를 통해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음으로써 지방의 정체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따라서 고도의 정치행위인 전쟁에 대해 새로운 비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13) 이용기, 「미군정기의 새로운 이해와 '사회사'적 접근의 모색」, 『역사와 현실』 제35호, 한국역사연구회, 2000, pp. 19-21.

14)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 p. 80.

15)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 p. 118.

16)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 p. 117.

수 있는 삶의 역사(생활사), 지역사, 인류학적인 구술사 연구가 최근 들어와 하나의 신경향으로 다음과 같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우선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소속의 인류학자(김경학, 박정석)-민속학자(표인주)-사회학자(염미경)-역사학자(윤정란)가 협동으로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서울: 한울, 2003):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Memories)(과주: 한울, 2005)를 간행하였다.

먼저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는 기존의 연구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파악했는지, 부제를 이렇게 달았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나 집단에서 개인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 중 전쟁 이후 국가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망각되고 민중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이후 빨갱이 또는 부역자로 단죄된 사람들 및 그 가족들의 전쟁경험을 주로 인터뷰하여 자료화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를 행하여 한 권의 논문 모음집으로 구성했다. 인류학자들에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애사(life history), 구술사(oral history) 방법론을 채용하여 전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¹⁷⁾ 반공의 관

17) 이러한 구술사 채록자료의 예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서울: 선인, 2004)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자료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는 아니며 유명 인사들의 증언 모음집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쟁 체험 수기를 묶은 책도 있다. 임성연(등저), 『6·25 우리들의 이야기: 전민족 체험기』(서울: 월간조선사, 2001); 이무호, 『어느 졸병이 겪은 한국전쟁: 제2회 나라 안팎 한국인기록문화상』(서울: 지식산업사, 2003). 또한 최근 실록 스타일의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최용호·김병륜, 『그때 그날: 끝나지 않은 6·25전쟁이야기』(서울: 삼우사, 2003); 이선교, 『제2차 한국전쟁 1-끝나지 않은 전쟁 6·25를 말한다』(서울: 봄, 2003). 물론 1980년대에도 참전군인들을 중심으로 구술사 자료수집이 있었다. Changil Ohn, "The Oral History Interview Project on the Korean War, 1950-1953", In *U.S.-Korean Security Relation: New*

점에서 기층민, 인권, 여성 등의 관점이 완전히 누락되었다고 진단한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저자들은 구술사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생활사를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로 전남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전쟁 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세계 속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전쟁 경험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방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 자의반 타의반 빨치산이 되었던 얘기(박정석 교수의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합기억,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61쪽¹⁸⁾)며, 강진의 대표적 양반가문인 해남 윤씨 집안이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좌우익 대립 구도 속에서 '좌익 또는 빨갱이 가문'으로 낙인찍히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염미경 교수의 「전쟁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116쪽¹⁹⁾) 등은 텍스트화된 역사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박정석 교수는 마을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November 29-December 2, 1987, Seoul: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1988.

18) 이 책에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경험」을 실은 박정석 교수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글을 썼었다.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기억 읽기, 『역사비평』 통권 59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년 여름, pp. 336-362.

19) 「전쟁연구와 구술사」를 같은 책에 실은 염미경은 이미 다음과 같은 글을 생산했었다. 염미경, 「양반가문의 한국전쟁 경험: 전남 강진지역의 근대적 지배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9집, 호남문화연구소, 2001, pp. 215-251; 염미경, 「전쟁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전망』 통권 제51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12월, pp. 210-237.

사람들의 집합기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염미경 교수는 마을사는 아니지만 한 가문사를 통해 근현대사를 조망했다.

전쟁경험에 대한 구술을 통해 윤형숙 교수는 사람들이 전쟁상황을 이념보다는 훨씬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틀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윤형숙 교수의 「전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전쟁과 사람들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77쪽). 이것은 한국전쟁을 이념전으로만 환원시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부분적으로나마 허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표인주 교수는 「전쟁경험과 공동체 문화」를 통해 민속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쟁과 기억 : 마을공동체의 생애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Memories)(과주 : 한울, 2005) 저자들은 책머리에 “한국전쟁을 체험했거나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 이야기를 수집해 생략된 과거를 복원하고 생생한 역사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은 지방사를 재구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큰 틀에 묻혔던 민초들의 생생한 삶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의 전편이 총론격이라면 2005년의 저작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천착하고자 한 각론이다.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이후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가 연구자들의 치밀한 현지 조사와 지역민들의 구술이 상호작용하여 복원되었다. 지역민, 주변인, 산 자와 죽은 자의 전쟁 등 총 3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방식과 의미화 과정’ 등 9편으로 구성되었다.

영광군 염산면 일대 기독교인 학살사건 등 지역 좌익세력에 희생됐던 영광과 강진, 영암 등 전남지방 폭력과 학살에 대한 주관적이며 생생한 기억을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증언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역사로서 재조명하려 했던 것이다. 김경학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 및 좌우익에 대한 기억들에서 민간인들의 현장 증언으로 집단학살의 실체가 단순히 이념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안 간의 사소한 원한과 경쟁 그리고 가족주의,

보복에 대한 우려,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얼마나 잃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난세의 처세술이 생명을 부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구술자(narrator)들은 국가적 기억에서 소외된, 그래서 오히려 생생한 주변부의 전쟁기억을 환기한다. 공식적인 전쟁기록이 외면한 학살 사연과 연좌제의 고통 등 민중의 아픈 기억을 구술사적 접근으로 끄집어냈다.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고, 침묵했다. 지주에 속하거나, 우익으로 몰려 가족의 안위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좌익에 가담해 앞장서기도 했다. 빨치산이 있었던 산과 인접한 마을은 낮엔 경찰 밤엔 밤손님 세상이었고, 빨갱이 가족은 호적에 찍힌 낙인을 운명처럼 생각하든가 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개가(改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윤정란 박사는 「한국전쟁기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이라는 글에서 영광군 염산면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학살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실들이 과장되어 기록되었던 이유를 밝힘으로써 기억이란 현재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지배받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박정석 교수는 「전쟁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경험」에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살기위해 이쪽과 저쪽을 피해 피난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주변인들의 기억들은 정형화된 공식적 기억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망하고 있다. 또한 염미경 교수는 「여성의 전쟁기억과 생활세계에서 전남 강진의 한 좌익 마을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채록했는데 여성의 정체성이 지역, 계층, 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개인의 성격 차이, 다양한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정석 교수는 「여순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낙인찍힌 사람들의 유가족이 겪은 사회적 고통과 삶을 그리고 있다.

한편 이용기 선생은 경기도 이천 갑자면 오두리라는 한 빨갱이 마을에서 현지조사와 구술자료 수집을 통해 마을 차원에서 부락민의 전쟁경험을 재

구성하면서 국가의 최말단 행정기관인 면 단위의 관계에서 국가-농민 관계의 성격을 분석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접근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 왜곡되었던 사람들의 전쟁경험을 보여주려는 시도다.²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학적인 구술사 접근방법을 전쟁 연구에 새롭게 도입한 역사인류학자 윤택림 박사의 저작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작으로는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 역사비평사, 2003)가 있다.²¹⁾ 그녀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

20)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 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Korean War in a 'red' village), 『역사문제연구』 제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pp. 11-55.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글도 저술했다.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A Proposal for the Righteous Location of Oral History), 『역사비평』 58, 역사문제연구소, 2002, pp. 364-384. 한편 앞의 글은 역사문제연구소가 2000년 11월 4일에 개최한 심포지엄 “한국전쟁은 민중에게 무엇이었나”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다음은 그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이다. 1부 남한 민중의 전쟁경험: 총론 :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모색: 1. 마을에서의 전쟁 경험-경기도 지역의 마을사례를 중심으로(이용기, 서울대); 2. 민중의 전쟁인식과 ‘민민의용군’(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2부 북한 민중의 전쟁경험: 3. ‘반동’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선택-치안대와 그 이후(김재용, 원광대); 4. 전쟁피해와 북조선사회의 변화(이신철, 성균관대). <http://blog.naver.com/stupa84?Redirect=Log&logNo=100019217563>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글들은 위 이용기의 글과 배경식, 「민중의 전쟁의식과 민민의용군」; 김재용, 「‘반동’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선택 : 치안대와 그 이후」; 이신철, 「전쟁피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변화」로 『역사문제연구』 제6호(2001)에 실렸다. 한편 박진홍, 『돌아온 패자 : 6·25 국군포로 체험기』(서울 : 역사비평사, 2001)는 색다른 자서전이다. 그는 1950년 학도병에 지원 입대한 후 1951년 11월 평안남도 덕천에서 중공군에 생포되어 북한군에 포로로 33개월 잡혀 있다가 1953년 7월 국군포로로 귀환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를 어떻게 다뤘으며 대한민국 국군이 용초도 포로수용소에서 국군포로들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기억을 통해 증언했다.

21) Taek-Lim Yoon, "Koreans' stories about themselves : an ethnographic history of Hermit Pond Village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92를 증보한 연구이다. 그녀는 1997년 국내학계에 「구술사와 지방민의 역사적 경험 재현 : 충남 예산 시양리의 박형호씨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0권 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7, pp. 187-213을 발표했다. 이외에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3; 윤택림,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 구술사연구를 중심으

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 기억은 교과서와 같은 공식적인 역사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사적(private) 기억은 개인의 생애사나 가족사로서 개별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좌익 가족들의 생애사나 가족사는 침묵되고 억압된 전쟁이야기로서 발설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 윤택림 박사는 국가나 지배층에 의해 구성된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재현이 아니라, 사적인 기억을 통하여 ‘예산의 모스크바’로 불린 충청남도 예산군 M면 시양리(가명)에서의 한국전쟁을 재구성하고 그 사적(private) 기억의 역사성을 전술한 저서에서 드러냈다.²²⁾

윤택림 박사는 6·25 중 개인적인 감정(마을 내의 개인적·정치적 불화) 등이 이데올로기의 탈을 쓰면서 서로 죽이고 극단적으로 대립했다고 주장했다. 마을의 한 인사가 공산주의자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에게 반감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우익을 표방했으므로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분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개인적 반감(정치적 분리)이 이데올로기적 탈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나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에 토대한 사회과학적 용어보다는 마을 내 개인 간의 정치적 불화로 전쟁 중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계급투쟁의 구호 뒤에 개인적인 감정-집안 간의 불화-지방 정치세력 간의 알력이 숨어 있었으며 후자가 더욱

로」, 『역사문제연구』 제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등이 있다.

22)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 역사비평사, 2003).

23)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 역사비평사, 2003), pp. 171-172. 부자였지만 교육을 받은 후 사상적 이유로 좌익을 택한 경우(유찬길, 김영찬)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좌익이었지만 부유한 공산주의자와 개인적으로 불화하여 우익을 택한 경우(유찬길의 머슴 강희진)도 있었으므로 계급과 이데올로기의 양분법적 관계 설정과 같은 결정론은 부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친화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자인 電工 오덕환의 경우 예산읍에서는 좌익으로 시양리에서는 우익으로 간주되어 어느 쪽이 우세한 세상에서 시차를 두고 각각 살 수 있었는데 전쟁 동안 이데올로기 구분이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했던 사례이다. 위의 책, pp. 186-187.

본질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데올로기라는 가면 아래에서 벌어진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감정적 주도권 싸움이니만치 이념 대결보다 더 치열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⁴⁾ 인민군은 지방 사정을 잘 몰랐으며 학살과 공포를 가져다 준 것은 군인이 아니라 바로 지방민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부에서 온 군인과 경찰, 청년단체원들이 학살의 주체였다고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또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 동안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했다. 시양리의 싸움이 계급 갈등이 아닌 이유는 지방 좌익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부유한 고학력 인텔리였다는 것이다. 물론 하부 남로당원 중 빈민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지만 말이다. 또한 좌우익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남은 자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대개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윤택림 박사는 지방 정치의 맥락에서 지방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정의는 좌우 이념을 경계로 가로지르면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좌와 우는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것이었다.²⁵⁾ 또한 작은 시골 마을인 시양리 내에서도 감골과 밤골의 상황은 매우 달랐는데 이는 6·25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시 지역의 역사를 좌와 우 양분법적으로 보는 대신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냉전과 분단이 가져온 반공이데올로기

24)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피넨 윤택림씨, 연합뉴스 2003-07-04 19:0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404880§ion_id=103&menu_id=103(검색일 2006년 2월 21일).

25) 그렇지만 중앙에서의 좌우대립은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되었으므로 이것이 전쟁을 결과했다. 이렇게 중앙과 지역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앙의 이데올로기 대립 이면에도 집안과 출신 지역 대립 등 권력투쟁의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양분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좌우 양극단에 속하지 않은 인사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남쪽편 아니면 북쪽편이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양극화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에서도 역시 전쟁을 통해 이전보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중앙과 지역이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모든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에 의해 구성된 획일적이고 양분법적인 사회적 담론을 수정하여 담론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대안적 역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시양리 사람들은 6·25때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겪은 6·25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회상을 통한 구술이 바로 그들에게는 역사적 진실일 수 있다. 윤택림 박사는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로 인해 다르게 형성된 기억의 정치학에 주목했다. 그런 면에서 기억과 다양한 정치에 주목했으며 박정석이 마을사람들의 집합기억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된다. 이용기 선생이 마을 단위에서 하나의 국민 의식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윤택림 박사는 하나가 아닌 담론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김귀옥 선생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1999년 「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The Identities of Wollamins in Resettlement Villages of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사회학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단행본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9)를 출간했다.²⁶⁾ 일찍이 그녀는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건설」,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을 기고했던 중견연구자였다. 그녀는 지방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한국전쟁경험을 드러내 보였다. 북한 출신의 월남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전쟁 시기의 원자탄과 세균전, 반공주의의 위력과 공포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월남인들은 빨갱이도 아니며 그렇다고 반공주의자도 아니라고 규정했다.²⁷⁾ 그녀가 어떻게 구술을 채록했는지 그 생생한 경험이

26)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업적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반공이데올로기 허물기: 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43호(서울: 한울, 1999), pp. 234-261;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 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의 반성」, 『경제와 사회』 46호(서울: 한울, 2000 여름), pp. 30-53.

27) 김귀옥, 『이산가족,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서울: 역사비평사, 2004).

「Regional Korean War and the Role of Wome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 No. 2 (June 2006), pp. 57-87에 담겨 있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구술사 채록이 많이 축적된다면 지역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술사적 연구 중에서 과거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확인에 비중을 둔 것이 있는데 비해 윤택립, 염미경, 김귀옥 등의 연구는 기존의 구조와 사건 중심의 역사서술에 배제되었던 행위자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경험과 기억의 역사를 시도한다.²⁸⁾

4. 강자에서 약자로 : 소수자에 대한 조망

소수자(minority)라 함은 사회적 약자를 지칭한다. 가부장적 질서하의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 병자, 혼혈인, 외국인 등을 들 수 있다. 소외당한 사람들인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한국전쟁 연구가 주목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상도 최근에 출간된 여성에 대한 연구에 국한된 편이다. 따라서 여성 외의 문제는 아직 미개척 지대와 같아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여성의 한국전쟁에 관련된 기억이 중요한 연구테마로 부상한 것은 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김현아, 『전쟁과 여성 :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속의 여성, 기억, 재현』(서울 : 여름언덕, 2004)이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2002년에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서울 : 책갈피)을 출간했었다.

한편 1950년대 한국여성의 사회사를 집중 조명한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 한국전쟁과 젠더』(서울 : 서해문집, 2004)도 특기할 만하다.

28) 염미경, 「전쟁연구와 구술사」, 『전쟁과 사람들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Korean War, Community, and Residents' Experiences), 한울, 2003, pp. 35-36.

이들 연구는 전쟁 연구에서 소외받았던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조망한 시도들이다.²⁹⁾ 특히 이임하 박사는 여성이 '대한여자의용군' 등에 참여하면서 병사로 동원되고, 병사를 간호하다가 위문에 동원되어 끝내는 위안부로 일하고, 후방에서 남성의 빈자리를 채우며 노동하는 모습을 그렸다.³⁰⁾

5.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으로 : 탈냉전시대 문학과 기억

전쟁문학은 전쟁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구일 지라도 전쟁기억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자료적 원천이다.³¹⁾ 전쟁 직후 전쟁문학은 전쟁의 참상을 통해 북의 침략성을 고발하는 도덕교과서식의 반공문학이 주류였다. 당시 문학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³²⁾ 1970년대 이후 문학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보다 근원적으로 조망하는 휴머니즘적인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탈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학살과 인간 개개인의 전쟁체험 등 금기시된 주제를 조망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즉 1950년대에는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쟁의 본질보

29) 여성 구술사 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성례, 「한국 여성의 구술사 : 방법론적 성찰」, 조옥라-정지영(편), 『젠더, 경험, 역사』(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4)에 나와 있다.

30) 그녀의 2003년 성균관대학교 역사학 박사학위논문은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The Korean Women's life and Social Discourse in the 1950s)이다.

31) 한국전쟁 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Mick Lee Fowler, "Korean War and Korean Consciousness: An Anthology of Korean War Literature with Critique", ph D. dissertation,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1974가 있다. 최근에는 유학영, 『1950년대 한국 전쟁 전후 소설연구』(서울 : 북폴리오, 2004); 문선영, 『한국전쟁과 시』(서울 : 청동거울, 2003) 등이 산출되었다.

32) 초기 양상에 대해서는 김윤식, 「6·25전쟁문학」, 동아일보사(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2권(서울 : 동아일보사, 1989)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폐허와 상처 또는 전쟁의 폭력성만을 다루었음에 비해, 1960년대에는 검열과 군사 정권이라는 당시 상황에 의하여 전쟁의 비극적인 의미를 대상화하고 성찰했으며 1970년대에는 아버지의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 망각된 역사를 복원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반공주의적 내서널리즘이 퇴조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의 망각된 기억을 활성화하며 전쟁을 그려내고 있다.

전쟁소설의 작가들을 전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직접 체험한 어른 세대', '전쟁을 유소년기에 체험하고 성장한 세대', 그리고 '타인의 구전을 통해 주로 기억하는 세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 구분에 따라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문학양상을 조망하는 유임하(Yoo Im-ha) 교수의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1997년 「현대 한국소설의 분단인식연구(A Study on the Division Consciousness in Korean Contemporary Fictions)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국문과)을 쓴 유임하(Yoo Im-ha)는 『기억의 심연: 한국소설과 분단의 현상학』(서울:이회문화사, 2002)을 출간했다. 그는 본 기획에 등장하는 「봉인의 풀림, 억압당한 기억의 귀환: 탈냉전 이후 한국소설에 나타난 전쟁기억의 새로운 양상」(Breaking the Seal and Return of suppressed Memories: New aspect of Korean war memory in Korean Novel after post cold war era)을 통해 소설문학에 나타난 전쟁기억을 냉전시대와 탈냉전기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전쟁에 관한 공공의 기억(public memory)은 특정한 권력의 편에서 순응하는 주체인 국민을 만들어내며 정치적 효과를 통해 억압적인 지식으로 냉전시대에 작동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공공의 기억으로 회수되지 않는 개인들의 침묵되고 봉인된 전쟁기억들은 냉전시대 공식 역사에는 등재될 수 없었다.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충혼탑 안에 개인들의 체험적 기억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이들 개인의 전쟁기억은 1970년대 이후 분단서사 안에서 비로소 문자화된 방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서 전쟁기억의 서사는 국가의 공공기억의 균열을 뚫고 활성화된

다. 바로 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었다. 탈냉전의 흐름 속에 황석영의 『손님』은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허망한 것으로 취급하며 역사의 망령들을 천도했다. 또한 박완서의 장편들과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 등에 나타난 전쟁기억 서사는 여성 주체의 관점에서 남성적 공공기억을 전복, 해체하며 침묵되고 은폐된 기억들을 발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의 전쟁기억 다시 쓰기는 탈냉전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본궤도에 진입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전쟁 문학 중 구술사와 생애사에 입각한 것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출간된 좌익가족 2세대 작가들의 저작 중 구술사에 토대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들 텍스트에서 전쟁기억은 국가의 공공기억이 아닌 개인과 가족사, 더 나아가 수많은 계층들의 목소리로 서사화된 바 있다. 구술생애사가 수많은 개인사를 채록하여 그 시대 안에 편재하는 어떤 심성과 역사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문학은 개연성(probability)를 통해 망각된 목소리들을 허구화하며 특정한 시대에 존재했을 법한 인물과 일어났을 법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재현해낸다. 그런 점에서 '어린 서술자의 관점'이나 '아래로부터의 시선'을 통한 '억눌린 목소리의 귀환'은 일국사의 전쟁기억에서 국가영웅 중심의 기술에 포함될 수 없는, 망각되었거나 침묵하는 개인들의 기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억에 등장하는 수많은 국가영웅과 전승미담은 역사적 망령들의 활성화된 기억 속에 퇴조했던 것이다. 특히 조은의 소설은 작가 주변 여성들의 발언된 바 없는 '침묵된 기억'을 담아내었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냉전의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이 침묵하는 이면에 천착한 텍스트다. 작가 조은의 개성이 한껏 발휘되는 부분은 기억의 개방과 단핍이라는 원리를 활용한 '여성의 구술생애사(Feminine Oral life history)'이다. 유임하 교수에 의하면 '구술생애사'란 이름없는 개개인의 역사로 된 문화적 집합기억을 만드는 작업이다. 요컨대 이 작업은 공공기억의 단일한 역사가 가진 매끈한 논리와 이야기 플롯과는 상관없이 그 여백에 담긴 개인들의 침묵된 기억들로 시대

속에 실재했던 멘탈리티를 재구성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박완서의 소설에 비해 조은의 그것은 그 서사구조가 치밀하지 못해 다소 방만한 느낌이며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결혼과 육아 등의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성찰은 너무 절제된 느낌이다.

6. 맺음말 : 생활미시사에 의한 거시사적 접근 보완과 구술사아카이브즈 구축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전쟁 연구는 본격적이면서 학문적인 연구가 일천했기 때문에 개론 수준에서 벗어나거나 전문화되지 못했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연구 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한국전쟁연구 전공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학문적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20여 년간 축적된 결과이며 일종의 연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57년이 경과한 2007년 한국인에 의한 한국전쟁 연구는 그 전망이 매우 밝다. 특히 공산권 아카이브가 열리면서 기존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교차 비교분석이 21세기 신경향으로 굳어졌다.³³⁾

이와 더불어 접근방법과 연구대상의 변화도 하나의 다른 신경향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6·25전쟁 연구는 정치적 접근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³⁴⁾ 2000년

33)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사회』 제46집, 한국산업사회연구회, 2000년 여름.

34) 경제사적 접근은 일찍부터 시도되었으며 정치사와 함께 한국전쟁 연구의 주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적 연구물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전쟁과 차

이후 역사학계는 기존의 문헌중심 역사연구의 대안으로 구술에 의한 역사 연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택림 박사는 “예전에는 지배층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문헌중심의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며 “피지배층은 기록을 가지지 못한 계층이므로 구술에 의한 역사 읽기는 민중의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³⁵⁾

전쟁이 끝난 지 54년이 된 시점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민중의 삶도 주목 대상이 되었으니, 평화체제 구축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다.

새로운 주제 천착과 연구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한국전쟁 연구의 중심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는 세계 화시대에 역행하는 닫힌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 연구의 중심을 한국 내에 세워 세계로 전파한다는 주체적 역사인식이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절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중심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다면 하나의 화석화된 역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반면 우리가 연구의 중심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족적이며 개인적 비극을 세계인에게 전파시켜 전쟁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의 보편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명림(Myung-Lim Park) 교수도 냉전체제하 반공주의에 대한 도전이 1980년대 민족·민중주의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는 관념적 민중주의를 넘어서 실제 민중들의 전쟁 체험과 기억들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탈식민주의, 탈민족-탈국가주의, 구술사, 지방, 마을 공동체 관련 주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³⁶⁾

본주의』(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0)가 있다.

35)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퍼넨 윤택림씨, 연합뉴스 2003-07-04 19:0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404880§ion_id=103&menu_id=103(검색일 2006년 2월 21일).

36) 박명림(Myung-Lim Park), 「역사-지식-사회 :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과정』, 북한연구학회 연말 학술회의 자료집, 2005년 12월 2일, pp. 60-61; 박명림(Myung-Lim Park), 「한국전쟁 연구의 경향과 전망의 해석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 113-173.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거시적이며 정치적 주제임에 분명하다. 본질적으로는 지역갈등이나 종교적 대립이 내재화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중앙에서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지만 각 지역의 생활인들은 개인적이며 감정적 대립에서 연원했을 수도 있다. 기존의 거시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들이 묻혀 버린다. 따라서 주로 거시적으로 접근되던 전쟁이라는 주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은 미시사와 거시사의 날카로운 대결을 지양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는 시도이다.³⁷⁾ 아직까지 전쟁은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며 주류적 접근이 간과하고 있는 다중적 주체로서의 민중의 비공식 역사를 미시적 접근으로 재발견·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사와 사회사의 결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일상사(Alltagsgeschichte)³⁸⁾적 접근과도 연결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적 해석은 남과 북 정부 각각의 공식 해석이거나, 학문적 객관적 해석이라고 해도 냉전에서 승리한 자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 정형화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민족 내부에는 지방, 계층, 세대, 성별에 따라 그 경험이 경우와 차원에 따라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면도 있다.³⁹⁾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37) 경제학에서는 일찍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중요한 것은 모두 거시 경제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모두 미시 경제적이다”는 콜름(Serge-Christophe Kolm)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미시와 거시의 공존을 모색했다. 위르겐 슈룸봄(Jürgen Schlumbohm), 『미시사-거시사 토론을 시작하며』, 위르겐 슈룸봄(편), 『미시사와 거시사(Mikrogeschichte, Makrogeschichte)』, 백승중(외역)(서울: 궁리, 2001), p. 18.

38) 일상사 연구는 ‘기층민중-서민(kleine Leute)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을 중심에 놓고 있다. 알프 린트케(Alf Lüdtke),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 가는가?』, 알프 린트케(외), 『일상사란 무엇인가(Alltagsgeschichte)』, 이동기(외역)(서울: 청년, 2002), p. 15. 또한 허영란·송충기(역),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한국과 독일 일상사의 새로운 만남』(서울: 책과함께, 2006)은 2005년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독일 일상사의 대가 미하엘 빌트 등이 모여 열었던 일상사 국제학술워크숍의 결과를 대폭 수정·보완하여 수록한 책이다.

39) 윤택림 박사는 각 주체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택림, 『인류학자

역사적 경험과 해석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국가-사회 중심의 지배담론에 매몰된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게 해주며 개인의 삶을 통해 구조를 바라봄으로써 구조의 억압성을 드러내게 하는 대항(counter)서술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를 통해 과거의 단순한 반영을 넘어선 현실 재현(representation)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 분단과 양극화된 냉전체제의 장벽에 막혀 목소리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하고 대립과 전쟁을 극복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냉전기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경험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술사아카이브즈(Oral History Archives)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구술사 연구의 성숙을 위해서는 구술사 연구자의 양성을 통한 엄밀한 구술사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사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술사아카이브즈 구축도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인 구술사연구에 기반한 아카이브즈도 중요하지만 아카이브즈 자체 예산에 의한 아카이브즈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구술사도서관도 필요하다. 대개 이러한 구술사도서관은 명망가를 그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만 평범한 민중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이야기를 수집할 수도 있다. 전쟁구술사아카이브즈 구축을 위해서는 전쟁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를 해야 하므로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서울: 역사비평사, 2003), p. 21. 그런데 과연 전쟁이라는 양극화된 상황에서 그렇게 다양한 해석과 입장 표명이 당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40) 김귀옥,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축』,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기록: 국내외 역사기록물 현황과 역사기록관 건립방안 모색』, 한국기록학회 주최 광복60년 종합학술대회[제4차], 2005년 8월 5일, pp. 143-162; 허영란,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사업 개요』, 국사편찬위원회(편),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 No. 2(2006) 특집은 구술사아카이브즈 구축 움직임을 환기시키려고 시도되었다.⁴¹⁾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현대사연구소를 통해 구술사 자료집을 간행했다.⁴²⁾ 이러한 구술사 자료 텍스트화에 의한 자료집 출간물들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으며 지식인-명망가 중심의 한계를 지니지만 하나의 시도로서는 가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와 훈련⁴³⁾을 통해 보다 엄밀한 구술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민중들의 이야기를 집중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9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구술사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있다. 전쟁 경험의 구술도 이러한 일환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 축적을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결할 수 있다면 후속 세대를 위한 정보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3. 3, 심사수정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한국전쟁, 구술사, 구술사아카이브즈, 기억, 지역사-지방사, 생애사, 다국사료 교차분석, 탈근대, 노근리사건, 후기수정주의

41)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Yoon Taek-lim, "Ordinary People's War Stories": Kim Gwi-Ok, "Regional Korean War and Oral History Research": Lee Im Ha, "The Korean War and the Role of Women": Yoo Im-ha, "Breaking the Seal of Memory: A New Perspective on Memory of the Korean War in Korean Novels."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선인,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서울: 선인,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서울: 선인,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내가 겪은 건국과 갈등』(서울: 선인, 2004).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에서 구술사 자료를 수집했던 정혜경 박사는 한국구술사연구회를 조직해 2005년에 『구술사: 방법과 사례』(도서출판 선인)라는 '구술사 입문서'를 간행하기도 했는데 우리 시대의 구술사 연구의 초기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ABSTRACT>

New Tendency of the Korean War Studies in the Republic of Korea

Lee, Wan-bom

A new trend of the post-Cold War era after the middle of 1990's is a multi-archival research which was made possible by Soviet archives and Chinese documents. The debate on revisionism and traditionalism was revitalized within academic circles through this post-revisional multi-archival method. To liquidate the past and to meet the clean future, oral history is also very important.

A new tendency of the Korean War studies in 2000's is to deal with Korean people's ordinary lives in war which were covered by ideological conflicts. Orthodox histories of two separate governments depends only on documents excluding victim's memories. Common people's experiences in province were different from top class politicians in central governments. Ordinary people's lives in local levels were revealed by their interviews which were suppressed in the Cold War era. Their counter memories will become new sources of alternative history to integrate and conciliate the old left-right confrontations. And collecting interviews will be the founda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Key Words: the Korean War, Oral History, Oral History Archives, Memory, Local History, Life History, Multi-archival Cross Analysis, Post-modern, Nojeun-ri, Post-revisionism